지난 1년간 지역화폐는 어디에 얼마나 쓰였을까?

- 대전 지역화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한 소비 분석 -

대전 지역화폐 기능이 포함된 하나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살펴봤다(대전시 AI정책당담관 제공). 분석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발생한 2,418만여 건의 결제내역이며,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과 공간분석을 사용했다. 이 기간 동안 대전 지역화폐 기능이 포함된 하나카드 결제금액은 약 5,971억원으로, 1건당 평균 약 24,700원을 썼다. 이번 데이터텔러에서는 지역화폐 결제내역의 업종별·이용자별·시간대별·행정동별 특성을 파악하여 대전 시민들의 소비생활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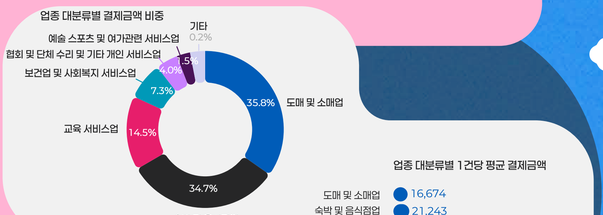
지역화폐 기능이 있는 하나카드 전체 결제금액과 해당 카드가 쓰인 가맹점 매출을 분석함 (단,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 분석은 '카드 소유자 기반 데이터'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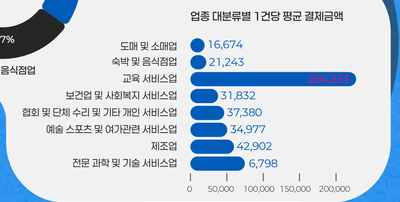
대전 지역화폐의 운용기관은 하나카드와 농협카드이지만 하나카드가 결제금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카드사간 데이터 호환이 되지 않아 하나카드사의 데이터만 분석에 사용함. 지역화폐 사용량은 예산 배정에 따라 달랐으며, 예산 배정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함

업종 대분류 중 가장 많이 쓰인 도매 및 소매업

업종 대분류별로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35.8%(약 1,866억원)로 가장 컸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34.7%(1,807억원), '교육 서비스업' 14.5%(758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1건당 평균 결제금액'으로 보면 '교육 서비스업'의 1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204,223원으로 가장 높았다.

업종 소분류에서 '한식 일반 음식점업'이 결제금액(24.61%/1,283억원)과 결제건수(20.09%/456만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다. 결제금액 기준으로는 '한식 일반 음식점업' 24.61%(1,283억원), '일반 교과학원' 8.56%(446억원),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6.77%(353억원), '슈퍼마켓' 6.55%(341억원) 순이었으며, 결제건수 기준으로는 '한식 일반 음식점업' 20.09%(456만건), '체인화 편의점' 13.06%(296만건), '슈퍼마켓' 10.94%(248만건), '커피 전문점' 8.48%(192만건) 순으로 지역화폐가 많이 소비됐다. 대부분의 연령대와 성별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소분류 업종은 '한식 일반 음식점'이지만, '40대 여성'은 '일반 교과학원'에 가장 많은 소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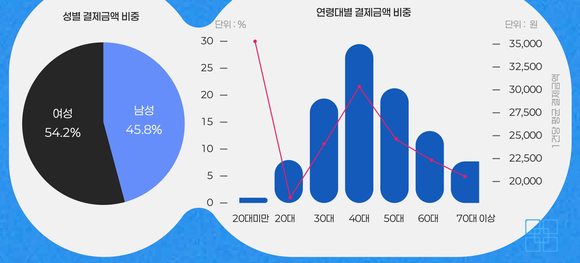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 40대

결제금액 비중은 여성 54.2%(3,232억원), 남성 45.8%(2,733억원)로 여성이 조금 더 많다. 연령대별로는 40대 29.6%(1,764억원), 50대 21.1%(1,258억원), 30대 19.2%(1,143억원) 순으로, 30~50대가 전체 결제금액의 69.8%를 차지한다. 40대는 결제금액뿐만 아니라 '1건당 평균 결제금액'에서도 30,360원으로 높아, 규모와 씀씀이 모두 크다.

카드 소유자의 주소지 분포를 분석해 보면, '서구' 35.56%(2,013억원), '유성구' 33.09%(1,873억원), 중구 11.88%(673억원), 동구 11.57%(655억원), 대덕구 7.90%(447억원) 순이다.

* '카드 소유자 기반 데이터'와 '카드 가맹점 기반 데이터'의 지역 분포 분석결과는 차이가 있다.

이용자의 지역별 결제금액 중 95.10%(5,661억원)가 대전 시민이고, 타 시도 거주자는 4.90%(291억원)이다. 대전 외 지역 중에서는 '세종'이 2.38%(141억원)로 가장 많고 충남 0.85%(50억원), 충북 0.43%(25억원)순으로 뒤를 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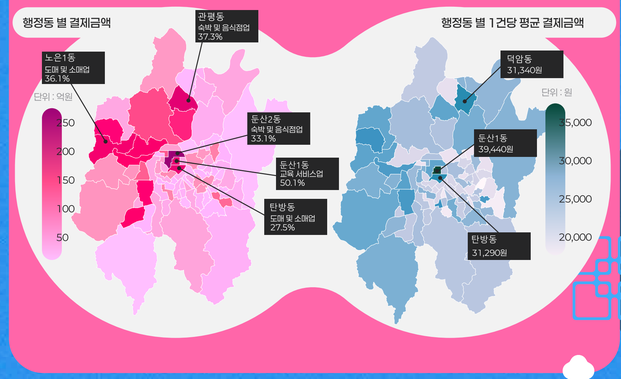


결제금액이 가장 큰 지역 둔산2동

결제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둔산2동 4.87%(286억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관평동 4.10%(241억원), 둔산1동 4.06%(238억원), 탄방동 4.00%(235억원), 노은1동 3.83%(225억원)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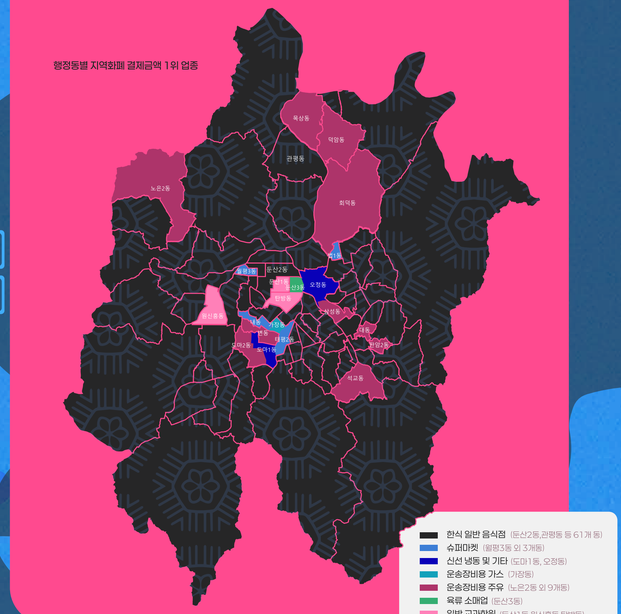
결제금액이 많은 행정동별 업종 대분류는, 둔산2동 '숙박 및 음식점업(33.1%)', 관평동 '숙박 및 음식점업(37.3%)', 둔산1동 '교육 서비스업(50.1%)', 탄방동 '도매 및 소매업(27.5%)', 노은1동 '도매 및 소매업(36.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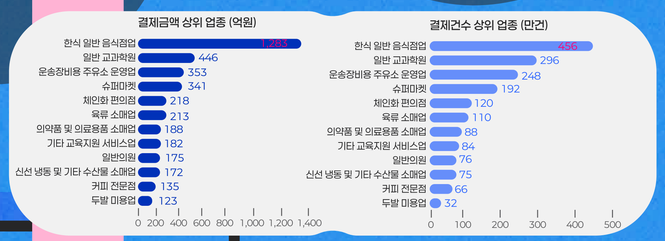
1건당 평균 결제금액으로 보면 순위가 달라진다. 82개 동 가운데 둔산1동이 39,440원으로 가장 높고, 덕암동 31,340원, 탄방동 31,290원 순이다.



61개 동의 결제금액 1위 한식 일반 음식점업

행정동을 업종 소분류로 보면, 82개 행정동 중 61개 행정동에서 '한식 일반 음식점업'이 가장 많은 결제금액을 기록했고, '둔산1동, 원신흥동, 탄방동'은 '일반 교과학원', '둔산3동'은 '육류 소매업', '노은2동 외 9개동'은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가장동'은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도마1동, 오정동'은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월평3동 외 3개동'은 '슈퍼마켓'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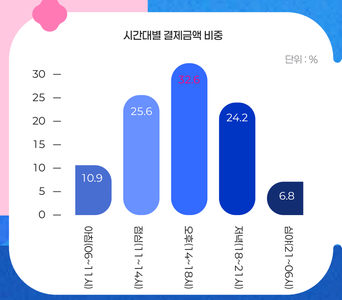




지역화폐를 가장 많이 쓰는 시간 오후, 요일은 금요일

시간대별로는 '오후(14~18시)' 32.6%(1,945억원), 점심(11~14시) 25.6%(1,526억원), 저녁(18~21시) 24.2%(1,443억원), 아침(06~11시) 10.9%(649억원), 심야(21~06시) 6.8%(408억원) 순이다.

요일별로는 금요일(16.3%, 973억원)과 토요일(16.2%, 965억원)이 가장 많았고, 일요일(10.1%, 605억원)이 가장 적었다.



연령대·성별 소분류 업종 1위

연령대	성별	소분류 업종
20대 미만	남성	일반 교과학원
20대	남성	한식 일반 음식점업
30대	남성	한식 일반 음식점업
40대	남성	한식 일반 음식점업
50대	남성	한식 일반 음식점업
60대	남성	한식 일반 음식점업
70대	남성	한식 일반 음식점업

연령대	성별	소분류 업종
20대 미만	여성	일반 교과학원
20대	여성	한식 일반 음식점업
30대	여성	한식 일반 음식점업
40대	여성	일반 교과학원
50대	여성	한식 일반 음식점업
60대	여성	한식 일반 음식점업
70대	여성	한식 일반 음식점업

대전연구원 DAEJEON RESEARCH INSTITUTE **발행** 최진혁 | **기획** 주혜진 | **작성** 최동식 | **디자인** 이우현 | **발행일** 2026. 09. 30 | **발간물 자문** 노성민 문충만 윤설민 이정범 정광진